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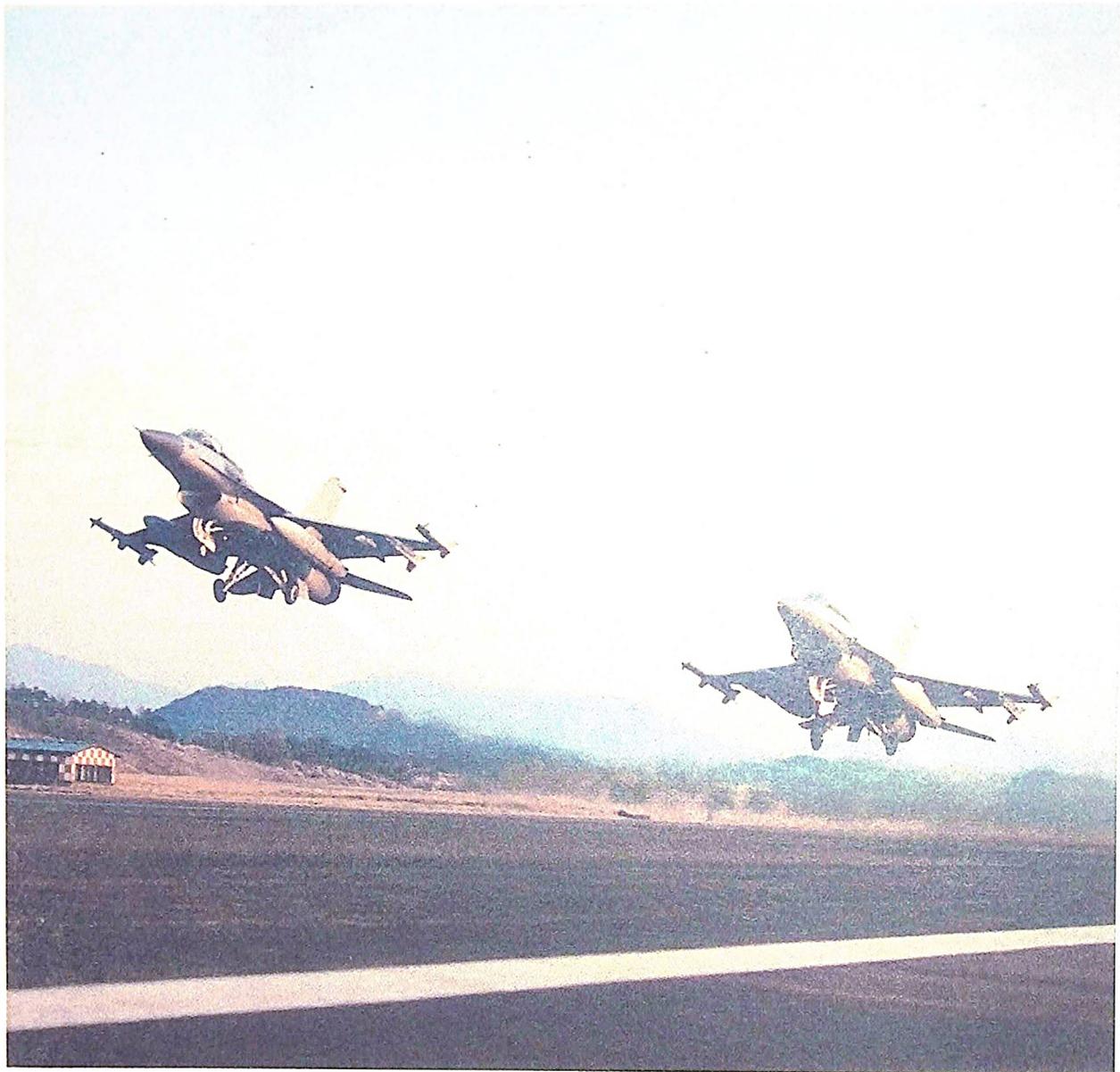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柳常新

編輯人：尹錫文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 156-080, (電話)：02-823-1091, (FAX)：02-823-1092, E-Mail：airfa@netsgo.com

去 舊 生 新



日日是好日 되소서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第 8 次年度 會長團 一同

會員 여러분의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祈願



新年辭

희망의 辛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會員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族이 건강하시고 많은 祝福 받으시기를 祈願합니다.

시해는 우리의 母校 空軍士官學校가 개교된 지 52년이 되는 해이며 第1期 士官의 任官 50周年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은다는 자체가 생소하고 위험스럽게만 느껴졌던 그 시절에 우리 星武人은 祖國의 하늘을 飛行하였고 6·25사변 때에는 自由民主祖國을 守護하기 위하여 하늘높이 飛翔하면서 우리의 하늘 우리의 國土를 守護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宇宙로 넓혀진 오늘날 空軍力의 歷史를 創造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의 일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基礎를 닦아왔습니다. 20세기말에 있었던 中東戰, 이라크戰, 걸프戰, 유고戰 등은 航空宇宙武器體系의 秀越性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대단히 값진 敎訓들이었습니다. 반만년 歷史를 지녔던 우리나라가 外侵과 外治의 수모를 겪었던 일들은 모두 우리의 國防力이 허약했기 때문입니다. 南北統一의 瑞雲이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國防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宇宙를 지키는 空軍力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認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南北交流가 더욱 활성화되고 社會가 안정되며 經濟가 발전하여 모든 삶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國家의 安全保障입니다. 특정한 國防없는 南北交流는 虛構에 불과한 錯覺입니다. 南北和解의 가능성만 보고서 마치 統一이 된 것처럼 흥분하는 우리의 태도는 크게 警惕해야 할 일입니다. 統一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祖國을 守護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國防力과 航空宇宙 防衛力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祖國守護의 성업을 완수하고 社會의 일원으로 값진 生活를 영위하고 개인 會員과 現역장교로 國防任務를 수행 중인 우리 會員들은 自負心과 矜持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意氣가 衝天할 때 이 나라 이 民族은 계속 繁榮할 것입니다.

總同窓會 設立의 제일 目的은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各 期別 同窓會인 團會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적인 團結은 동기생별 團會에 비해 微弱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의 歷史를 지닌 空軍士官學校의 歷史 속에서 배출된 先後輩관계는 어느 학교 졸업생들의 관계보다 뜨거운 關係를 생각할 때, 先輩가 後輩를 사랑하며 後輩가 先輩를 尊敬하고 상호 信賴하며 團結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國家와 社會에 寄與하고,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하여 서로를 돕는 참다운 사람의 손길이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辛巳年 한해 동안 우리 總同窓會는 몇 가지 중요한 事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任官 50周年을 맞이하는 第1期 士官 선배동문들의 勞苦에 感謝드리고 慰勞하고자 합니다. 1950년 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空軍發展의 주도적 役割을 담당해왔고 오늘의 발전된 空軍이 있도록 獻身的으로 努力했으며, 특히 總同窓會의 발전을 위하여 맨 앞에서 樞樞의 역사를 이겨내신 先輩동창회원들에게 後輩동창회원들의 이름으로 感謝와 慰勞를 드리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星武營의 가장 오래된 先輩와 매추리 生徒가 한 자리에 모이는 값진 行事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母校와 後進들의 發展을 위하여 模範의으로 士官生徒 생활을 한 卒業生을 졸업 및 임관식장에서 表彰하는 制度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軍의 士氣와 士官生徒들의 自矜心을 고취하기 위하여 國軍의 날 行事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

난날 우리의 생도생활을 回想하게도 하고 斷絃 넘치는 젊은 士官生徒들의 무지를 직접 볼 수 있는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關心과 聲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는 全 士官生徒와 代表生徒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母軍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空軍의 후예들이 당당하게 領空守護의 임무를 成功的으로 遂行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母軍의 士氣를 振揚시키고 先後輩의 情을 돈독히 하는 행사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21세기는 情報通信기술시대라 할 만큼 인터넷이 생활화한 情報社會입니다. 空軍이 科學技術軍이란 自負心을 갖는 것처럼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親睦을 도모하는 公事총동창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寄與에 힘입어 총동창회의 財政은 계속 擴充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납부해주시는 平生會費는 전액 총동창회 基金으로 積立되고 있으며 目標額에 도달된 이후부터 基金의 果實金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회원과 關係가족의 지원, 모교의 장학 및 발전사업, 사회봉사사업 등에 값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상호간의 親睦을 돈독히 하고 國土防衛의 重要한 任務를 수행하는 회원들을 적극 支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會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參與와 支援입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총동창회에 愛情을 가지고 指導鞭撻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會員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이 모두 幸福하고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2001년 1월 1일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長 柳 常 新

회보 인덱스

- 3 同棼異夢의 南北關係가 아니길 바란다
- 4 어떻게 늙어야 할 것인가?
- 5 못다한 하늘 사랑
- 6 空士總同窓會 消息
- 7 母軍·母校 短信
- 8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
- 9, 10 平生會費 納付 現況
- 11 會員動靜

물처럼 살거래이

물처럼 살거래이

만물에게 살거래이 물인기라.

제갈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가는게 물인기라.

어려운 구미를 만날수록

더욱 열정을 내는게 물인기라.

맑고 깨끗하야 모든 더러운 물은

씻어주는게 물인기라.

맑고 깨끗하야 마다를 이루고 노기를 키우노

되돌아 이슬비 되는데 바보들의

사람도 이 물과 같이 우주만물의

이웃으로 주의야 하거래이.

물처럼 살거래이

물처럼 사노라 하면 후회는 없으리라.

時論

同牀異夢의 南北關係가 아니길 바란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다.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침투해 간첩활동을 하다 검거되어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미전향 장기수와 빨치산들을 전부 석방하고 그것도 모자라 63명을 북송하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어 50년 동안 북에 억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351명의 국군포로와 강제 납북된 454명의 어부들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고 송환문제를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한심한 일이다.

장기수는 애국지사로 때때로 여기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지난 9월 2일 공산주의자들의 북송이 무엇이 그리 아쉬운지 환송모임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연세대 강당에서는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일부 교회에서는 환송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북에서 탈출한 국군포로에 대한 대접은 너무나 초라했다. 지난 8월 7일 국군포로 4명이 제3국을 통해 귀국했으나 공식 보도도 없고 언론과 접촉도 못하고 했다니 정부에서는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 '94년 11월 조창호 중위 때만 해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시민과 학생 6,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포로 면역식을 성대히 치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용사들의 공로는 인정하지 못할망정 무엇이 두려워 북의 눈치를 보느라고 쉬쉬하며 언론에 공개를 못하게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장기수들은 관문집을 넘자 개성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꽃다발 세례를 받고 「붉은 벤스」 38대에 분승 평양에 도착하자 4천명이 넘는 연예인과 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동원됐으며, 평양시민들이 인산 인해로 환영했다고 평양 방송이 보도하였다.

지난 9월 11일에 대남 사업의 총책 비서인 김용순이 추석 선물로 송이버섯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느닷없이 서울에 왔는데, 수행원으로 군복입은 인민군 대장 박제경을 대동하고 왔다. 송이버섯을 보내는데 군복 차림의 인민군 대장을 보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스파이의 두목인 김용순이 제주도와 포함 포철을 방문하는데 왜 임동원 국정원장이 수행원처럼 따라다녔으며, 조성태 국방장관은 박재경 인민군 대장을 만나려고 애썼는지도 도대체 안보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자존심도 없는지? 우리들의 체면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도 너무 변했다. 국민들은 통일에 희망이 걸렸고,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에 마취제를 맞아, 온 신권이 마비된 것 같다. 북한 사회는 요지부동한 뿐 아니라 내부결속을 다지는 군중집회를 연일 열고, 강성대국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며, 김정일은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사상과 혁명의 감자가 되자고 외치고 다닌다.

특히 8월 14일 일간지에 김정일과 우리의 언론 사장단과의 대화록

이 대서 특필됐다. 「통일은 내가 마음먹는 때에 할 수 있다.」 「내 힘은 일심단결한 군사력에서 나온다.」 「통일은 북한의 정선과 남한의 경제가 합친 것이다.」 「당 규약은 원로가 많아 고치기 어렵다.」 「로켓에서 몇 억 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할 수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은퇴 후 김정일 위원장님을 통일대통령으로,」 「모든 언론들이 국방위원장님을 칭송하고 남한 주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청와대 어느 여비서가 말하기를 벌써부터 우리 장관들이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다 「오늘 김정일님을 뵈게 되었으니 나처럼 영광을 지닌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정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된다. 휴전선이 뚫리는 것이다. 철책선이 무용지물이 된다. 휴전선 일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설된 대전차 지뢰도 제 구실을 잃는다.

경제 협력의 의미는 있는지 몰라도 보안상으로는 성문을 열어주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개구멍보다 못한 땅굴로 들어오겠

함을 떠나기 앞서 「그리운 형제의 멍청에 사람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려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로 모인 길」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을 적화하겠다는 규약을 실천하겠다는 행사에 참가한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가 가기도 힘든 곳인데 인민무력부장, 김일철과 대남 전략

「이제 유럽은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처칠은 이제부터 유럽은 비극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는가? 서울은 단 5시간 내에 함락되고 다른 전선에 배치된 국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포위되며, 5만 명의 주한 미군도 손쓸 틈도 없이 포로가 된다. 너무 빨라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25년 전 월남인들이 호치민을 존경했다. 그런 월남을 미국이라 해도 구해줄 수 없이 적화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통일 후 가장 먼저 제거됐다. 그 수가 천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총수 김용순 등 북한의 고위층은 자기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다리고 있다.

북한은 대화 따로, 군사 따로 하고 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은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의 지상군 훈련을 실시했다. 공격과 기습에 필요한 기계화 부대와 특수부대 훈련을 실시하면서 후방지역의 기계화 군단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남쪽의 사소한 군사훈련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깨는 행위라고 걸맞다면 시비하던 북한이 내부의 군비증강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러한 사실은 얼마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뒷받침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부근에 북한군 병력의 70%인 70만 명과 8,000문의 대포 2,000대의 전차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화해협력의 측면에서 북한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이지만 북한은 공산국가이며, 독재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협상, 협약 조약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다.

7·4 성명과 기본합의서가 북한에 의해 유린당한 쓰디쓴 과거가 있다. 중국 국민당정권은 공산당과의 협상에서 속고 속은 나머지 중국 대륙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미국과 월맹간의 파리 평화협정도 월남공산화를 가져왔다. 키신저는 파리 평화협정의 공로로 197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그 노벨평화상의 진짜 대가는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남의 공산화됨을 가져왔다. 1938년 영국의 수상 찰버린은 독재자 히틀러와 뮌헨 협정을 맺고 런던에 돌아와 「이제 유럽은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처칠은 이제부터 유럽은 비극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처칠의 예상대로 히틀러는 2차대전을 일으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돌아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찰버린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 안할 수가 없다. 또 역사는 항상 경험적 지혜를 증시하는 나라와 민족 편에 선다는 지고의 진리를 잊어서도 안되겠다. 그리고 사마양주 평 망안필위(天下雖平 忘安必危), 아무리 세상이 태평해도 안보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위함이 닥친다는 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기 최호근 영전에 드림

강 옹 구(공사 6기)

자네 부음 소식에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베매다
 알고 보니 생시였네
 저승길이 대문밖이라지만
 무엇이 바빠
 인사말 한마디 없이 가야 했나
 시간의 강물에 묻혀
 누구나 가야 할 곳이라면
 너무 서러워 말게나
 좀 늦게 가고 빠르게 가지 않겠는가
 험하고 먼 삼 속에서
 못다해 아쉬운 것 있으면
 미련없이 털어 버리게
 삼의 끝자락에 와보니
 해 놓은 것 아무것도 없고
 다만 아련한 추억뿐
 이런 것 무슨 소용 있나
 홀로 왔다 홀로 가고
 공수래 공수거인길
 그러기에 인생은 허무한 걸세
 기나긴 인생 역정(歷程)을 여행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게나
 이제 미움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강물처럼 바람처럼 돌아가게나
 우리 훗날 저승에서 만나
 이승에서 맺은 인연들
 이야기 꽃 피워보세
 잘 가게나
 고히 잠들게나

김정일 오빠부대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반미운동과 한국군 격하운동이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다. 북한 경제를 건설해주고 인민에게 복지사업을 제공한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우수기업들이 손해를 보가면서 북한에 투자하고 있다. 현대는 '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무려 2억 4천만 불의 적자달 보았다. 경의선이 복원되고 철도 옆에 4차선 도로를 나란히 개설에 이르는 육로가 개설된다. 지뢰가 제거

통일 통일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북한이 흡수할 가능성은 60% 넘는다.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설 5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사회 14개 단체에서 33명, 그리고 개별초청 9명, 이 중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백기완과 통일원 장관을 지냈던 한완상을 비롯한 42명이 북한에서 보내준 항공기 편으로 북한을 갔다. 이들은 김포공

민주시민대학 교수 강 옹 구(공사 6기)

어떻게 늙어야 할 것인가?(How to Grow Old?)

몇 해 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학생들에게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의 뜻을 아는 학생은 손을들어보라고 했었는데, 손을 드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그 때, 세월의 흐름과 사회 풍속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 바가 있었다.

희랍의 철학자 플라토(Plato)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일화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플라토가 아테네에서 젊은이들에게 철학을 강의하고 있었던 때의 일이다. 플라토의 명성을 듣고 시라쿠스(Syracuse)의 독재자 디오니시우스(Dionysius) 1세가 가르침을 받고자 그를 초청하였다. 플라토는 소수의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독재자를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여 선정(善政)을 베풀게 하면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

어 사회적으로도 큰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디오니시우스 1세의 초청을 쾌히 승낙하였다. 시라쿠스로 간 플라토는 디오니시우스 1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독재자인 디오니시우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옳지 않다고 반박하는 플라토에게 화가 나서 결국 플라토를 노예로 만들어 팔아버리고 만다. 그 소식을 들은 플라토의 친구들과 옛 제자들이 돈을 모아 그들의 스승을 구하게 하여 플라토는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였기에 이들은 스승을 위한 향연을 베풀어 플라토를 환영했다.

그 때 한 제자가 다가와서는 물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공한 제자들을 보셨으니 흐뭇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 제자에게 플라토는 제자들의 훌륭한 성공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Few know how to grow old."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플라토가 던지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 한 예를 유럽의 한 유명한 화가(젊은 미켈란젤로였다고 하기도 한다)의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화가는 자기 마음에 새로운 성당을 세웠는데, 그 안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화가는 쾌히 승낙하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다가 붓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그 이후 여러 해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화가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젊은 청년 한 명이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면서 술집을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화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는 "젊은 양반! 내가 술값을 지불하고 돈도 줄 터이니 내 부탁이나 들어주겠나?" 하고는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무엇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화가는 "다만 하루에 서너 시간씩 내 앞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면 된다네."하고 제안하였다. 그 청년은 힘든 일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내일 모레면 곧 죽으실텐데 그것을 배워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비록 내 몸이 곧 죽게 되지만 이 세상 하직하기 전에 한가지 더 알고 하직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청년(青年)과 노인(老人)을 구별하는 것은 꿈(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한다. 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늙어서 꿈을 꾸려면 실현가능성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 꿈을 실현하려면 체력과 기력이 따라야 한다. 늙어서 꿈만 있고, 실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공상(空想)에 불과하게 된다.

가지적이라도 더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것이든 배우게 되면, 알았다는 것에서 오는 희열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테니스나 골프 등 운동을 하게 되면 비록 잘 하지 못하더라도 테니스나 골프의 묘미를 맛볼 수 있으며, TV를 통해서 보더라도 재미있어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얀 화폭에 붓을 옮기다 보면 비록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보면 비록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무엇을 알게 됨으로써 거기에는 즐거움이 따르게 되는데, 그 즐거움을 찾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청년과 노인을 구별하는 것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고 생각되어 다음날부터 그 화가 앞에 앉아서, 화가가 다시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난 어느 날 화가는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보았다. "왜 우느냐?"고 묻는 화가에게 그 청년은 "선생님! 자를 모르십니까?"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화가가 "며칠 전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것 이외에 그 이상은 모르겠네?"하였더니 청년은 울면서 "선생님께서 저 벽화의 천사의 그림을 그렸었을 때 제가 그 모델이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악마가 다시 제가 되어 버렸으니 제 자신이 너무 추하게 변한 것을 느껴 슬퍼서 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사람이 자라나면서 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경우는 한 나쁜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얼굴 모습은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의 링컨(Lincoln) 대통령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10년 앞당겨 나이 30에 자기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와 연관지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일방에서 음을 타는 소리가 하도 멋있게 들리기에 일방에 있는 죄수에게 그렇게 멋있게 악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20~30년 전 어떤 모임에서 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제법 성공했다고 평을 받고 있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반가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돈이 많이 번어서 사회적인 성공을 했다고는 보이지만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졌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공을 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꾸어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 위치에서 만족하여 자신을 가꾸기보다는 자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다. 겸손하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내어서 배우면서 자신을 완성시켜나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못 했었다.

이제 내 나이 칠순이 되고 보니, 늙어서는 화내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등등의 조언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늙어서도 하부에 한

따라서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다보면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강제로 무언을 배우야 한다는 강박감보다 배우는데서 오는 즐거움을 찾는다는 마음에서 살게 되면 생(生) 그 자체가 즐거워지게 된다. 마음가짐이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교만심은 없어지게 되며 또 항상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노인(老人)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치매도 걸리지 않게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젊어지게 된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으며, 그 많은 책들도 다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즉, 사람이란 자라 온 과정에 재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개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다른 누군가가 무엇을 한다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기의 길을 알아내어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항상 생(生)이 아름답게 보이며, 슬기롭게 늙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플라토가 말한 대로 '슬기롭게' 늙을 수 있고, 소크라테스처럼 많은 것을 알고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양대 문리학과 명예교수
문 국 진(공사 2기)

大 · 慶 보라매 장학회 모금 안내

대구 · 경북 보라매회는 보라매 자녀를 위한 장학회를 설립, 미래에 공군의 위상을 드높일 인재를 육성코자 그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시절 대구 · 경북지역에서 인연이 있었던 보라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모금목표 : 5천만원(1천만원 기화보)
- 지급대상 : 대구 · 경북 현역 보라매 자녀
- 운 영 : 장학이사회 회칙에 의거 이자로 매년 5명 범위내 지급
- 장 학 금 : 기금 찬조자 명의로 지급
- 계좌번호 : 대구은행 038-08-050406-7(예금주 : 권태정)

대구 · 경북 보라매지회 발기인 일동 드림

못다한 하늘 사랑(樂山·樂水·樂空)

인자요산(仁者樂山)하고, 현자요수(賢者樂水)라는 말이 있다. 뒤집어보면 요산자인(樂山者仁)하고 요수자현(樂水者賢)이니 어진 사람은 산과 물을 좋아하고 산과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질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파란 끝없는 창공이 좋아서 하늘에 살면서 평생을 하늘에 바친 사람은 무엇인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년 과정의 불교 교양 대학을 이수 중에 어떤 한분을 만나 동문수학(同門修學)하였다. 수료 후 학교측으로부터 그 분을 정점으로 한 조직체가 만들어졌고 나는 그분을 도와 4년이 동안 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해사(海士) 8기생으로서 군 재직시에는 함대사령관, 해군 참모총장까지 역임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국가 관련 공사의 대표직을 여러군데 역임하신 바 있으신 분이였다.

자기의 지난 자취를 돌아보면서 써본 출판기념물이라면서 책 한권을 주기에 받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책표지의 제목이 "못다한 바다 사랑"이었다. 그때 나도 훗날 혹시나 어쭙찮은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서전이라도 낸다면 나는 그 표제를 "못다한 하늘 사랑"이라 하리라고 마음먹었던 일이 있다.

요즘 나는 근교(近郊)의 산들을 자주 찾는다. 찾을 적마다 이렇게 좋은 안식처를 가까이 두고서도 그동안 몰랐던 세월이 마냥 아쉽기만한 생각이 든다. 도심 가까운 곳에 이처럼 좋은 산과 물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그저 밖으로만, 또 멀리에서만 안식처를 찾으려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다.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서 개울가 길을 따라 올라간다.

맑고 깨끗한 물이 졸졸졸 구슬을 굴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 전날 비라도 내리고 난 후면 그 물소리는 더욱 좋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흐른다. 흐르다 앞에 바윗돌이라도 막아서면 그냥 돌아서 간다. 돌이라도 쌓여 앞길을 막으면 서두르지 않고 물이 체위지기를 기다렸다가 넘쳐흐르는 여유도 보인다. 개울과 개울이 모여서 내가 되고 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들이 모여 마침내 바다를 이룬다. 옛 선현들이 왜 물처럼 살라고 하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벌써 산 중턱을 오른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나를 즐겨 맞이한다. 산과 한두 단 전 같은데 숲이 달라지고 등산로가 전혀 딴길처럼 달라졌다.

한두 달 뒤의 등산로를 그리며 무상(無常)을 느껴본다.

마치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최상봉을 정복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으로 9부 능선을 올라선다. 정상과 맞닿은 파란 하늘이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한다.

정상에 올라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고 싶은 곳을 찾느라 바쁘다. 편퍼짐한 바위를 찾아 허리를 곧게 하고 앉고 가쁜 숨을 고른다.

힘겹게 올라온 산꼭짜기와 산등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선을 좀더 멀리하면 넓은 벌판이, 모래성 같은 도심과 개미떼들이 움직이는 듯한 차량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온다.

넓은 벌판과 도심은 가로지르는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본다. 완구를 한점 없다. 숨을 길게 내 쉬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가뻐던 호흡이 풀리지며, 빨라졌던 맥박이 제자리를 찾는다.

병치끝이 시원하다. 마치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듯...

눈을 지긋이 감는다. 흘러간 45년 세월이 푸마똥처럼 눈앞을 스친다.

국적 미상의 여객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른다.

소리 없이 아무런 흔적 없이 멀리 사라져버린 텅빈 공간엔

파란 하늘뿐이다.

요즘처럼 전자오락실도 없었다. 호프집도 없었고 DDR 같은 것은 더더구나 없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입던 까만 교복을 입은 채 부슬부슬 내리는 불비를 맞으며 진해 공군사관학교 정문을 들어선다. 생도생활이 시작된다. 대방동 공군사관학교로 이전, 그리고 졸업, 임관을 한다.

단, 사출간의 휴가를 끝내고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린 사전에는 공군비행학교에 도착하여 긴긴 비행생활이 시작된다.

초등, 중등, 고등과정, 그리고 전투기 전환과정은 어떻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는 체 끝난다. 첫 배속지가 김포에 있던 00비행단 000비행대대다.

그 후 이 비행단 저 비행대대, 이 작책 저 보직을 전전하는 동안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 비교적 성실하였던 것 같다. 마침내 푸른 제복을 벗는다.

짧은 공간 뒤 다시 비행생활이 계속된다.

한라산을 내려다보고 남해 바다를 굽어보던 제주 대한항공의 기초비행훈련원의 비행 교관 생

완. 또 동해·서해, 그리고 남해, 이산 저산. 이 항구 저 항구를 찾아다니며, 항공 촬영을 하던 삼미항공 시점들이 면면이 스친다.

아쉬움이 많다. 섭섭한 것들도 있다. 어떤 것들은 미움 내지는 원망 같은 것으로 앙금이 되어 남아 있다.

숨을 길게 내 쉬기를 되풀이한다. 이런 저런 가슴속에 먼지와 앙금들을 모두 토해낸다.

머리가 맑아진다. 속이 후련하다.

묵적이 되어 버리기도 하였지만 하산 길에 아늑한 곳을 찾아 집사람이 정성스레 준비해준 도시락을 펼쳐놓고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와 함께 나눠먹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이다.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도시락을 꺼내놓을라치면 일행들이 준비해온 반찬들에 관심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꼬치꼬치 캐묻는 말에 대충 대답해 넘기면 다음 등산시에는 찬 종류가 제법 달라져 있기도 한다.

등산을 시작하여 도시락을 준비할 때는 다 늙은 말년에 도시락 시종까지 들어가 하느냐고 투덜대더니만 정성스레 준비해주는 찬이며 보온밥통의 온기(溫氣) 속

에서 평생을 같이해 준 집사람의 고마움 같은 것을 물씬 느끼기도 본다.

하산 길은 배낭이 가벼워졌기도 하여서이지만 마냥 낯길이가 가볍고 즐겁기만 하다.

등산로 입구에 내려와 등·하산 길을 뒤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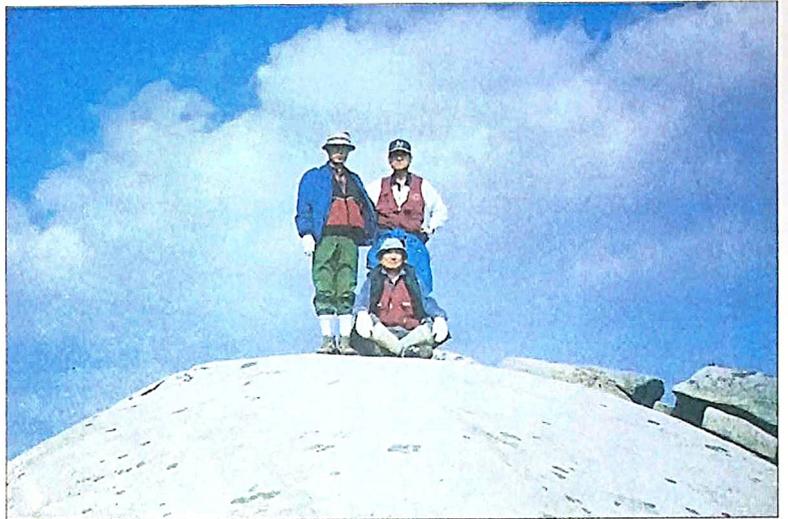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는 곳」, 근엄하고 장엄하다. 그리고 고맙다.

집에 돌아가면 집사람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하리라 다짐한다.

그러나 집에 와서 도시락을 건네 받는 집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안오고 만다. 속으로 빙그레 웃을라치면 왜 웃느냐고 꼬치꼬치 묻는 말에 나는 대답 대신 빗어놓은 젖은 내복을 세탁기에 넣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만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어찌라만 싶다.

홍동창회 사무총장
윤석문(공사 8기)



空 士 總 同 窓 會 消 息

공군 제19비행단 慰問

지난 11월 8일 본회 회장단, 임원 및 운영기수인 8기생 다수는 공군 제19비행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정문을 들어서자 광활하게 전개되는 비행장과 잘 정리된 비행장 내 부대 시설과 경관에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철통같은 전비태세에 대한 현황 침체에 이어 현대화된 비행대대 비상대기실 등을 견학하였으며, 고가의 무장전시장을 견학하면서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서 자랑스런 KF-16의 성능시범 비행은 항공기가 이륙하면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뛰어난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사들의 기량에는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성능시범을 보여준 조종사들에게 꽃다발 증정과 함께 손을 잡아 주며 등을 두들겨주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정성스레 준비된 오찬에서는 선배와 후배가 어우러져 정감이 오갔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탄금대에 들려 왜병을 맞아 처절한 전투를 했던 신평장군을 추모하였으며, 보람차고 즐거웠던 날들이 아쉬워 하며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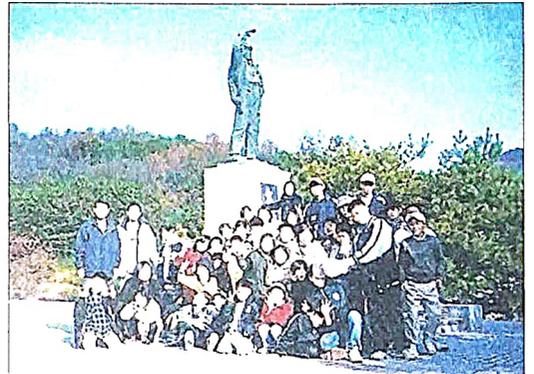


즐거운 하루 나들이

■ 지난 11월 19일 서울 시흥에 있는 해병보육원(불교 복지시설) 아동 40여 명은 공사 교장 주창성 중장(공사 16기)의 따뜻한 배려로 즐거운 하루 나들이를 했다.

■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한 아동들은 공사 성무 호국사에서 정기 필요법회를 가졌으며, 법사님이 준비한 따뜻한 오템국물에 가져간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박물관, 항공기 전시장 등을 견학하였다.

■ 귀경길에는 어주에 있는 북아막물관(사실 학교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아동들에게는 가고 오고 두기 더할 나위 없는 즐거운 하루 나들이가 됐다.



친선골프대회 200회 돌파

지난 2000년 9월 27일 공군 삼공회는 남수원CC에서 골프모임 200회를 기념하는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군 삼공회는 정보통신분야의 예비역모임으로 현역과 예비역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에 방축된 모임으로 그 이후 27년만에 200회를 돌파한 어떤 동아리보다 모범이 되고 있는 친선모임이다.

본회 회원 50여 명과 함께 보라매회 윤자중 회장, 전우회 배상호 회장, 공사총동맹회 조연효 부회장, 항공관계분야 대표 최영선 사장 등이 참석하여 대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화합 한마당

■ 지난 10월 2일 ~ 10월 4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다. 운동장 코트 안에서는 선수들이 힘과 기를 겨루고 응원석에서는 응원단과 일반관람객까지 응원전에 모두 모두가 하나가 된 화합 한마당의 장관을 이뤘다.

■ 체전이 끝난 10월 4일 저녁, 총동맹회장단과 임원진이 공군회관에서 선수단과 공사 교장 이하 선수 지도부 간부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격려연을 베풀었다.

■ 삼사체전을 준비하고 치루는 동안 공사 총동맹회원 모듬은 고락을 함께 하고 나누는 땀과 열매를 수 없는 동체(同體)임을 한번 더 실감할 수 있었다고 교장 주창성 중장(공사 16기)은 감사사를 표했다.



<내 너와 함께 있으면>

김도식(공사 8기)

내 너와 함께 있으면
침묵은 강물처럼 흘러도
가슴엔 민들레가 핀다.

내 너와 함께 걸으면
높은 하늘만을 치켜도
가슴엔 모닥불이 핀다.

내 너와 더불어
헤어져 떠날 때면
가슴엔 구름 같은 설움이 핀다.

각 기수별 지원 현황	
1기~10기	1, 2, 3, 4, 5, 6, 7, 8, 9, 10
11기~20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기~30기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기~40기	31, 32, 33, 34, 35, 36, 40
41기~48기	41, 44, 45, 46, 47
기 타	보라매회, 공군장교회
TOTAL : 42,500,000원	



母軍·母校 短信



국내 독자기술 개발 최초 항공기

■ KT-1은 현재 공군이 초·중등훈련기로 운용 중인 T-41, T-37의 노후화에 따라 기본훈련 과정에 사용할 교체 후속기로서 우수한 선회, 상승성능 등 각종 기동성과 저소음, 낮은 연료소모율, 조종 편의성 및 안전성 등 모든면에서 유사 훈련기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영국 항공잡지인 「Flight International」에서는 세계 유명항공기를 시험 조종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의 시승 소감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도했다.



공군전력 발전방안 모색하다

■ 제9회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가 지난 10월 11일 ~ 10월 13일 사이에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과 1층 이벤트 홀에서 공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항공우주분야를 선점하는 자만이 21세기를 주도한다"라는 테마로 21세기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의 공군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이날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는 공군 참모총장 이익수 대장(공사 14기) 서정욱(전 공사 교관)과 학기기술부장관 등 군내·외 무기체계 및 항공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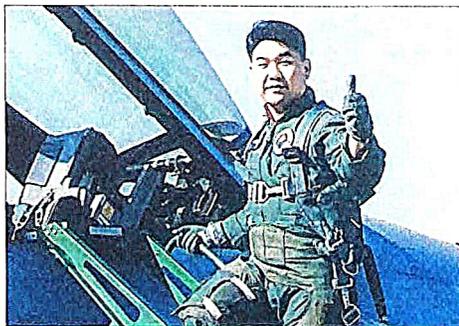


새천년 첫 "TOP GUN" 탄생하다

공군은 11월 22일(수) 오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이익수(공사 14기)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 참모와 수상자, 17전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공군은 지난 10월 9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2000년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는 공군의 모든 비행대와 전투조종사들이 출전, 최고수준의 전투기량을 겨루었다.

이 대회에서 새천년 최초의 딸레니엄 TOP GUN은 KF-16 조종사인 19전비의 이준선 대위(공사 42기)가, 영예의 종합 최우수대대는 8전비의 207대대, 17전비의 152대대, 19전비의 159대대가 각각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업 경과 보고

공군사관학교 교정이며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의 이사장인 공군 중장 주창성(공사 16기)은 공군사관학교 발전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보내온 '99~'00년도 사관생도 교육을 위한 사업 경과 보고 내역이다.

보 고

▲ 총자산 : 19억6천만원('00년 11월 말 현재)

- ◆ 자 산 : 19억6천만원(부동산 2억5천만원 상당 포함)
- ◆ 이자발생액 : '99년(1억8천만원), '00년도(1억3천만원)

▲ 사업 집행 현황

-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정관
- ◆ 목적사업
 1. 사관생도의 학술,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
 2. 교수 및 훈육관 학술 연구활동 지원
 3. 생도, 교수, 훈육관의 국내외 교육 및 연수와 학술 교류 지원
 4.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지원
- ◆ 기본재산의 운영
 - ① 기본재산의 원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② 목적사업의 재원 마련은 기본재산의 금융이자만을 사용한다.

연도	시 업 명	세 부 내 역	지원금(단위:천원)
'99	○ 생도 국내·외 견문취대 사업지원	- 생도 해외견학 : 8개국 161명 - 백두대간 탐사(3회)	155,160 16,110
	○ 교육진흥 장학 사업지원	- 명사 초청 특강(9회)	4,500
	○ 생도/동문 자금심 교리 및 유대감 회복	- 개교 50주년 기념 사진 및 항공조각 작품전시	19,840
	○ 교육 체계방안 연구	- 학교 장기 발전과제 연구사업	1,600
소 계			197,210
'00	○ 생도 국내·외 견문취대 사업지원	- 생도 해외견학 : 7개국 91명 - 백두대간 탐사(1회)	93,200 13,130
	○ 교육진흥 장학 사업지원	- 명사 초청 특강(5회)	1,270
	○ 항공공화 발전 목적기탁 사업	- 항공분야 학술 연구지원 (응제학박사 2천만원 목적기탁)	1,630
	소 계		

【공사 동문을 위한 공군사랑 신용카드 발급안내】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서는 국민카드사, 외환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공군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대령 운용현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 290-5915(성-5915)
FAX : 043) 298-0922
H·P : 017-680-5351

※ 가입하면 전담 2,000원과 원 사용금액의 0.1%가 우수한 생도 육성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고 하니, 다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지원실 이용 안내

2000년 5월부터 서울 복지근무지원단 산하에 제대군인 지원실이 개설되어 지원사업 일환으로 예비역 장성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 예비역을 대상으로 장의행사뿐 아니라 경사(본인회합, 자녀결혼)까지 희망하시는 분께는 주류 및 음료수 등이 지원되고 있으니 각 기별 회합/충무년께서는 홍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지원실 : (군/태성대)923-6140, 일반전화 : 810-6140
총동참회 사무실 : 823-1091

☎ 지원범위

지원범위	지원품목	소 주	맥 주	비 고
장 군	5Box(100병)	10Box(240캔)		음료수는 자체 구입 가능(민생품에서 제외)
대령 이하	3Box(60병)	5Box(120캔)		

※ 미사용량 및 잔고 환용(법 개정시까지)

“夫婦愛란 이런 것”

한 젊은 여성이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도중에 다른 차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녀의 차도 앞 범퍼가 크게 부서졌다. 그녀가 운전하던 차는 출고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는 새차였기 때문에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실수를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할당 말인가?

상대편 차의 운전사는 그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지만 사건 처리를 위해 서로의 운전면허번호와 자동차번호를 교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은 등쪽중을 꺼내기 위해 차안에 있는 커다란 갈색봉투를 열었다. 그때 종이쪽지 하나가 봉투에서 떨어졌다. 그 쪽지에는 남편의 큼지막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을 잊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치 · 매

암보다 무서운 게 있다. 고혈압, 당뇨,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과민반응이면서 정작 이것은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경하고 중한 것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바로 치매라는 것이다. 단란하던 가정을 풍비박산시키면서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 것은 혹 군왕이라도 된 듯한, 혹은 굉장한 권력자로 등극이라도 하는 듯한 착각에서가 아닌가? 일독(一讀)해 볼 일이다. 일독만으로는 안된다.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 없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닌가 한다.

- 편집실 -

●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

가족력 발병 20~25%

① 가족력/부모나 형제 자매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본인에게 치매가 올 가능성은 약 20~25% 정도다. 이는 일반인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치매유전자를 보는 검사로는 아포이(ApoE) 유전자형 검사가 있으나 이를 통해 발병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하나의 위험인자로만 작용하며 치매의 발생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머리 다친 경우 잘걸러

② 뇌 병력/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뇌 감염이 있던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뇌혈류가 너무 부족할 때도 치매증상이 올 수 있다.

알코올·마약 중독자 위험

③ 알코올중독/알코올중독자들에게서 치매 증세가 더 잘 나타난다. 그밖에 마약이나 부탄가스 등에 대한 중독자도 조심해야 한다.

교육수준과는 반비례

④ 교육과 인종/보통 교육수준에 반비례해서 확률이 높다. 서양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압도적으로 더 많지만 동양에서는 혈관성 치매도 흔하다.

고집센 사람에게 많이

⑤ 옹고집/성격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유난히 자기고집이 센 사람들, 남을 잘 용서하지 않고 이해할 줄을 모르며,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치매 증세를 더 많이 보인다.

● 치매 증상 알아보면...

기억력 · 언어표현력 감퇴

방향감각 잃고, 계산 실수

치매 환자는 기억력 감퇴와, 하고 싶은 언어 표현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방향감각이 떨어져 계산에 실수를 보인다. 성격이 바뀌는 상태에 접어들면 이미 초기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면 치매 초기를 의심하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다음의 '치매 5대 증상' 중 3대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 치매의 5대 증상

기억장애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 때가 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은 잘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 힘들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배우자 생일 등 중요한 사항을 잊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있다.
	어떤 일을 해 놓고도 잊어버려 다시 반복한 적이 있다.
	약속을 해놓고도 잊을 때가 있다.
	이야기 도중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을 때가 있다.
	약먹는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불건을 사리갔다가 한두 가지를 빠뜨릴 때가 있다.
	가스 팔을 끄는 것을 잊은 적이 있다.
	남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자주 보는 친구나 친척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해놓고도 안했는지 물어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두고 다니거나 또는 가지고 갈 물건을 찾는다.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언어장애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불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편지나 사무적인 편지를 쓰기 힘들다.
방향감각	갈수록 말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가기 힘들다.
계산능력	책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여러번 읽어야 이해가 된다.
	방향 감각이 떨어졌다.
	매번 가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생각변화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돈 관리를 하는데 실수가 있다.
	이전에는 사교적이었으나 요즘에는 외출하기를 싫어한다.
생각변화	이전에는 의욕적이었으나 요즘에는 만사가 귀찮다.
	이전에는 성격이 급하고 활활했으나 요즘에는 느긋해졌다.
	이전에는 까다로운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관대한 편이다.
	생각이 단순해졌고 어린아이 같다.
	이전에는 너그럽고 자상한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이기적이다.
목욕, 양치질 등 개인 위생이 전반적으로 게을러졌다.	

● 예방 어떻게...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 이 두가지 질환의 원인을 알면 예방도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가 서서히 죽는 병. 왜 그런지는 아직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나 독일의 의학자 알츠하이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늙으면 얼굴에 검버섯이 피듯이 뇌세포 대뇌피질에도 '얼룩무늬 검버섯(노인반)'이 생긴다. 이 노인반은 단백질의 일종. 체내의 지질이 산화되면 과산화지질이 되고, 이것이 노인반을 만든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지질은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등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위험 지방 성분. 이것은 동맥경화, 협심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잘 생긴다. 특히 고혈압이 위험인자인데, 혈중 콜레스테롤 등이 혈관을 막거나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다. 결국 고지혈증이 있으면 중장년에는 협심증 등 심인병에 걸리기 쉽고, 노년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설명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치매예방법은 언뜻 보면 심인병 예방법과 비슷하다.

치매는 가족력이 강한 질병으로 양친 모두 치매에 걸린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를 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5배쯤 높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 치매 예방 13가지 원칙

- ① 고혈압 치료
- ② 당뇨병 조절
- ③ 콜레스테롤 점검
- ④ 협대 금연
- ⑤ 심장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 ⑥ 비만 예방
- ⑦ 적절한 운동
- ⑧ 과음은 절대 금물
- ⑨ 머리를 많이 쓰라.
- ⑩ 폐경기 후 여성호르몬 투여 적극 검토
- ⑪ 우울증 치료, 많이 웃고 밝게 살아라.
- ⑫ 심병에 걸리지 않아야 함.
- ⑬ 기억 · 언어장애가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라.

會 員 動 靜

주 소 및 전 화 번 호 변 경

기수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4	홍사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삼막(아) 402-1101	031-914-0149
4	이조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 사랑마을 청구(아) 1617-703	032-322-2029
4	이상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탄현마을 805-1103	031-922-0790
4	최재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5 무지개마을 건영3차(아) 601-603	031-719-3510
7	김인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 108-1303	812-5570
7	최창환	경기도 광주군 공주읍 태전리 193 태전지구 3단지 성원(아) 305-1104	031-761-7309
8	김덕영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5 신동아(아) 705-807	3280-3101
8	최홍범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탄현마을 삼환(아) 1304-1402	031-921-0779
8	강영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08 삼호(아) 104-206	813-9108
11	정 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장미마을 동부코롬(아) 123-901	031-702-9452
13	태종민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아) 105-1601	717-1188
16	김의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동 36 삼성(아) 101-704	055-854-2606
17	조규식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3 삼성(아) 102-1701	2236-7770
17	김종현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 우성(아) 102-301	861-4036
18	오환근	서울시 강서구 열왕동 289 신동아(아) 3-706	659-9489
20	김우식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5 동아3차(아) 306-1301	671-7817

인 사 및 동 아 리

■ 8期 柳常新(분회 현 회장)은 지난 10월 1일~10일 4일 일본 고베시 국제회의실에서 거행된 한국과 일본 기계학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참여하여 "비정상 유종의 가시화를 위한 AOM잡치와 MSA입고 리플을 이용한 유동영상결과와 비교 연구"와 "탄성원형관내에서 비뉴턴 유체의 맥동유동 해석"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매 4년마다 한국과 일본 기계학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주요한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이다.

■ 4期 朴雄鎮(분회 4대 회장, 시인, 문학박사)은 지난 10월 5일 14시, 예술의 전당 서예반 2층 문화사랑방에서 국제문화예술상 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12월 11일 14시에는 국제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영예의 허균문학상 수여행사에서 공로 특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허균문학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흥감동전의 저자이자 해동천재로 문명을 크게 떨친 허균선생과 조선 최고의 천재 여류시인인 허난설헌의 업적과 그 뜻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대한항공 공군사관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

현역으로 군 복무시는 영공수호에 주역이었으며, 전역 후에는 대한항공의 핵심으로 역할을 성실하고 있는 동문들의 결속을 다짐하는 송년 모임이 12월 11일 17시 30분 원당 4거리 공항웨딩부페에서 있었다.

회원이 250여명이나 되는 대한항공 공군사관학교 동문회 회장 김석호(공사 15기) 일행이 10월 8일 본회를 방문하여 향후 본회와 친목을 돈독히 하겠다는 간담과 함께 본회 회장단을 송년회에 초청하여 참석하였다.

WWW.KAFAPRIDE.ORG

고태석(공사 40기)은 사업에 바쁜중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선후배 50여명을 동아리로 하여 매일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분회와 연합으로 공사총동창회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인 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 홈페이지 : WWW.KAFAPRIDE.ORG
- 운 영 자 : TESKO@FORNANS.CO.KR (고태석)

♣ 화 혼

이 수 용(16기)의 장남 형일군 : 10월 3일(화)
 우 훈 기(8기)의 아들 덕승군 : 10월 28일(토)
 이 준 영(8기)의 차남 동석군 : 11월 4일(토)
 윤 정 채(19기)의 장남 현호군 : 11월 18일(토)

※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전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의 주소로 정천장 우송도 대행해 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

♣ 부 음

홍 인 기(11기) : 10월 10일 인천 길병원
 최 호 근(6기) : 10월 18일 서울 삼성의료원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편집자 코너

1.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8차년도 4회 발행 중 2회째 회보가 원고 부족으로 어렵게 나갑니다. 지난날의 추억, 나누고 싶은 생각, 알리고 싶은 소식들을 타자지 4면 이내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난 원고료는 없습니다.
2. 신상변동은 신속히 통보 바랍니다.
 회원관리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수시 변동되는 회원들의 신상/주소 변동이 아닌가 합니다. 각 기별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기별 환동 사항도 수시로 통보 바랍니다.
 (전화 : 02-823-1091, (군) 6792, FAX-1092.
 E-Mail : airfa@netsgo.com)
3.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회비·기별 찬조 및 광고를 협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보/찬조 안내합니다.

안 내

국민은행 : 285-01-0075-673(예금주 : 윤석문)
 조흥은행 : 372-01-046167(예금주 : 전춘우)

- 누 구나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술선하여 납부하고,
- 언 제라도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지금 당장 납부하며,
- 이 왕에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기꺼이 납부한다.

회비 납입 안내

회원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기별/임원회비(회기별)

- 회기(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 1기~ 7기 : 기별 40만원 또는 임원부담
- 8기~ 28기 : 기별 60만원 또는 임원부담

찬조금/광고협조

- 회원이면 누구나

송금시 유의사항

- 입금시 기수, 성명, 납입구분(평생회비/기별/임원회비, 기타)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